

7/14/19

설교 제목: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마가복음 8 장 27-38 절

- (막 8:27)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절관주** 마 16:13, 눅 9:18
- (막 8:28)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 (막 8:29)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 (막 8:30)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 (막 8:31)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 (막 8:32) 드러내 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 (막 8:33)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 (막 8:34)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 (막 8:35)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 (막 8:36)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 (막 8:37)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 (막 8:38)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마가 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부분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주변의 이방 땅을 다니시며 병든 자, 귀신들린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오병이어 칠병이어 등등의 이적들을 베푸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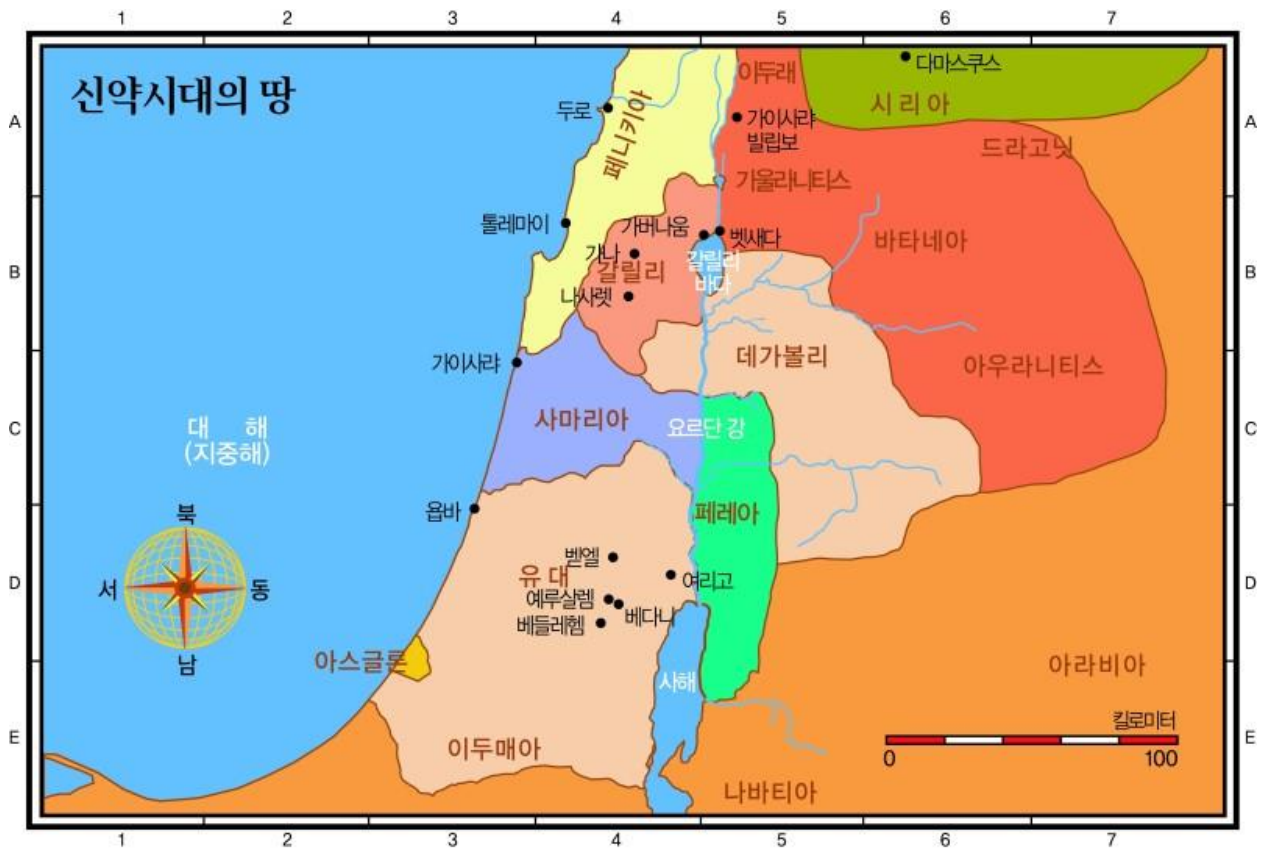
사역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부분에는 그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하신 사역과 거기서 받으신 수난과 부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본문이 첫 부분에서 두 번째 부분으로 전환하는 전환점이 됩니다.

본문 사건 이후 그동안 사역의 주 무대였던 갈릴리 바다 주변 이방 지역이 무대에서 사라지고 예루살렘이 무대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갈릴리에서의 전반기 사역을 마치시고 후반기 사역을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기 전 예수님은 열두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북쪽에 위치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왜 직접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당신이 가시고자 하는 예루살렘과 반대 방향인 가이사랴 빌립보를 들르셨을까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지역이었습니다.

헬몬 산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 사시사철 헬몬 산으로부터 물이 흘러 내렸습니다.

물이 풍부하니 자연히 땅도 비옥하였습니다.

이 땅은 분봉 왕 헤롯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로부터 하사 받은 땅입니다.

후에 헤롯 빌립 2 세가 이땅을 로마 문명의 중심지로 정비를 해 놓은 후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 '가이사라'라고 이름을 붙였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 가이사라와 구분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뒤에 붙여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붙였습니다.

이곳에는 주로 수리아인과 그리스인 등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으며 빌립 왕이 세운 풍요와 다산의 신이며 산림의 신을 위한 신전과 로마 황제를 위한 아우구스투스 신전이 크고 화려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멋진 이곳에 제자들을 데려와 크고 웅장한 이방의 신전 앞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장소에 크고 웅장하게 세워진 호화로운 이방 신전 앞에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심으로써 그들이 이같은 세상의 부유함과 화려함을 보고도 당신을 가르켜 '당신은 그리스도이시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막 8:27)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당신을 누구라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라고 지칭하신 것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고 있었기에 선뜻 대답합니다.

(막 8:28)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르켜 엘리야라고 하는 근거는 말라기 말씀에 있습니다.

(말 4:5) 보라 여호와와 그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메시아라면 당연히 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치적 군사적 표적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이방 나라들을 짓밟으며 보란듯이 땡땡거리며 살고 싶어했고 그 일을 메시아가 오셔서 성취해 주실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질문하십니다.

(막 8:29)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대답합니다.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로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인 표적을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행하신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과 베드로의 인식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단지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아니면 어떤 선지자에 불과했습니다.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는 제 삼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바로 자신을 구원해 줄 메시아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생각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답변은 예수님을 아주 흡족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듣기를 원하시고 기대했던 대답이었지 모릅니다.

바로 이 답을 듣기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수많은 이적들,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이적을 베풀어 보여 주셨습니다.

바람을 명하시어 갈릴리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으며 바다 위를 걷는 모습도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같은 답변을 듣게 된 것입니다.

마태 복음에는 베드로가 이같이 대답을 하자 예수님이 기뻐하시며 약속까지 주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 16: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 16:1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마 16:18)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 16:19)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언급하시며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반석'이란 바로 베드로의 고백을 말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막 8:30)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왕이시면 당시 권력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잃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에도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였다고 해서 그가 예수님을 고난 받는 메시아로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의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정치적 군사적인 메시아로 믿었으며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정치적 군사적인 표적을 행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치적 군사적 승리를 가져오지 않는 메시아란 생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의 잘못된 메시아 관을 교정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어떤 메시아로 오셨는지를 알려 주십니다.

(막 8:31)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당신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받으시다가 죽임을 당할 것이고 죽은지 삼일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당신을 철썩같이 정치적 군사적인 메시아로 믿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이 말씀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회를 보다가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서야 처음으로 이 말씀을 꺼내신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불같이 화를 내며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막 8:32) 드러내 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베드로는 몹시 흥분하여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흥분하여 항변하였을까요?

죄도 없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셔야 하다니 말도 안된다 싶어서요?

아니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생각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 받으시다가 죽으면 안된다고 흥분하며 만류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정치적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신 줄 알고 자신의 인생을 걸고 그동안 쫓아다녔는데 이제와서 허무하게 고난을 받으시다가 죽을 것이라니 이게 무슨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입니까?

그렇게 되면 자신이 꿈꾸던 장미빛 인생은 다 꺾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는 믿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 받는 메시아로 믿은 것이 아니라 정치적 군사적인 승리를 가져다주는 메시아로 믿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나 당시 유대인들이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고난 받는 종의 사명을 받고 죽으러 이땅에 오신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러한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막 8:33)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시며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셨다고 할 때 ‘꾸짖다’라는 단어와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다고 할 때 ‘항변하다’는 단어가 원어로는 동일한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떻게 대들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 특별히 바로 직전까지 그토록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베드로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신은 영의정이나 우의정 한 자리 쯤이야 따는 당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터라 예수님이 가시는 고난의 길을 막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생각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다면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고난의 길을 결코 막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막 8:34)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신의 세상 야망을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이용하여 내 야망과 목적을 이루려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온전히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세상에서 감내해야 할 고난과 예수님을 선택했을 때 당할 수 밖에 없는 핍박 등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보는 손해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은 세상에서 살면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고난과 핍박이 덮칠지라도 묵묵히 그것들을 인내하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은 자기의 야망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인한 고난까지 기꺼이 감당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막 8:35)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고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는다니요?

예수님이 부연 설명을 해 주십니다.

(막 8:36)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막 8:37)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만약 사람이 세상 것을 다 가져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생명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꼭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인간은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인간이 죽어야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인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님의 신묘망측한 역사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새피조물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막 8:38)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세대를 말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도 똑같이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2000 년 전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것과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혹시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높여 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신지요?

혹시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앞에서 설교하는 김순배 강도사의 구주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

우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아니고 너의 구주 또는 다른 누구의 구주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 되십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려놓고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주님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크리스찬이 마땅히 가야할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